

추수
감사
주일

11/22/20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pixabay

1부 중보기도 : 목회 2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에스더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환난 중에도 감사를 넘치게 하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달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롬 14:6]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대상 16:34]

1.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펜데믹의 풍파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깨닫고 나누며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2. 창조주 하나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로 안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 속에 참 안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3. 지금 이 시간, 혼탁해진 우리의 영을 성령의 생수로 씻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셔서 겸손히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부흥을 주옵소서. 길을 잃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다가올 영적 대추수를 준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 제 2의 청교도 성도들로 모두 쓰임 받게 하옵소서.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승리와 소망 안에 살게 하옵소서.
6. 모든 중보자들을 정결케 하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천상옥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 8:1]

1.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닿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2. 찬양팀과 울동팀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과 울동이 되게 하옵소서.
3. 찬양할 때, 모든 결박을 풀어 주옵시고, 평안과 감사 강 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정태호목사님, 문기훈목사님, 전성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광마장로님, 김정기장로님, 이현범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감사를 넘치게 하자(4)-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롬14:6)**’의 말씀을 통해, 말세의 환난 가운데에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심하여 탁월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3. 팬데믹으로 단혀진 공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또한 가정 예배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4. 목사님의 간절한 도고와 간구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순간 위로하시고 세밀한 음성과 감동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5. 말씀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여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 부흥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영적인 대 추수가 은혜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선교지와 열방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 전교인 성경 다독 읽기 (7/27-11/30)
- Grace Encounter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가정에서 드리는 성찬 예식도 잘 준비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3. 설교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말씀을 통해,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막 16:17-18)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5.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체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제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뒤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현금시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9:10]

1.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전심을 다해 드리는 헌물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4.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공예배와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 가정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3.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말씀통독을 통해 매일 매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도 충실하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예배자로 훈련 되게 하옵소서.**
2.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3. AWANA 프로그램(1학년~5학년)과 중고등부 예배와 ZOOM 가정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 받게 하옵소서.
4.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청소년들을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각종 미디어, 음란물과 마약, 정신적인 연약함과 아픔, 자살의 늪 등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6. 공교육을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7.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온라인 학업을 통해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1. 환우들과 고난 당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2.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마음의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3. 예배 통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육이 소생케 되게 하옵소서.
4. 가족들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5. 코로나 사태로 병원 치료가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돌보심과 보호가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6.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서울 은혜교회가 하남시에서 새 부흥을 일으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역들을 다시 열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자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3.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4.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근 선교사님/ 황광식 선교사님(케냐)-교회 옆에 땅으로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 코로나로 한국 체류 중이신 모든 선교사님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 김재한 선교사님 (베네주엘라/ 파나마) - 2020 선교사역 마무리와 동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와 농장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 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 - 성전 건축 : 골조 공사 마무리 되었고 외벽/ 내부 공사 및 안전을 위해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김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운섭 선교사님 비타 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신 선교사님 (A 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정광수 선교사님 식도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사할린) 코로나는 완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장과 신장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명철, 이지향 선교사님(I 국) -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영순 선교사님- 류마틱 자가 면역 결핍증 통증(한국행-치료 예정) • 김봉년 선교사님(첼라빈스크) 전립선 제거 수술 예정 • 양창모 선교사님(T 국)의 파킨슨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미국을 위한 기도

1.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함과 탁월함을 갖춘 해외 선교분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들의 소명을 다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다하여 용기있고 근면하게 하소서
2.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소서. 삶과 세계관이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외 뿐만 아니라 그들 지역사회에서도 잃어버린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3.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치유와 평안함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진 가족들이 회복하게 하소서.
4. 우리 교회가 성경에 따른 건전하고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소서. 또한 그들의 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사용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5. 교회가 기도와 회개로 가득차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역교회에서 리더들을 훈련시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게 하소서. 지역교회가 미국에서 기도, 회개, 회복,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소서.
6. 다음 세대의 본보기이자 멘토로써 교육자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학교에서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을 활성화되어 교육기관들이 이전 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7. 비즈니스,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공정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관들이 다른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하소서.
8.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대통령, 행정부, 대법원, 의회, 시장, 등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소서.
9. 우리 나라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며 악한길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10.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대 부흥을 허락하소서

1. 미국, 선교사를 위한 기독교 항공사(Judah 1) 내년 출범 (제공 :Christian Post)

<https://www.christianpost.com/news/worlds-first-christian-airline-to-cater-to-missionaries-charge-no-luggage-fee.html>

2. LGBT 그룹은 Biden에게 성경적 기초 위에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의 인증을 제거하도록 촉구
3. 매사추세츠 주 의회, 후기 낙태 허용 수정안 통과, 부모 동의 철회
4. 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원치 않는 동성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 금지 조항은 미국 헌법 제 1 조에 대한 위반으로 판결
5. OC COVID-19 확산 저지를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통행금지(10pm-5am)



“환난 중에도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GMT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수감사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 미국 이주 400 주년을 맞이하여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로 청교도 신앙을 배우며 청교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청교도들의 귀한 신앙에 도전을 받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미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며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시 33:12)” 하신 말씀대로 청교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나라가 된 것입니다.

12 명의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청교도들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가 400 년이 지난 오늘의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꼭 필요한 것은 청교도 신앙 회복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 집회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300 여개 한인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이 급속하게 퍼져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거리두기로 전혀 낮은 일상을 조심하며 부자유한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환경이 너무도 불편한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준비해서 성찬식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집에서 최상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청교도들처럼 환난 중에도 넘치도록 감사하는 시간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최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재의 삶과 선교현장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최후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 최후가 아니라 축복의 전제이기 때문에 축복이 최후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싫어하시는 죽음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부활의 전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최후로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최후로 보셨기 때문에 그 분은 능히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 받는 신앙생활의 요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음을 꺼려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최후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왜 헌신을 못할까요? 그것은 헌신 자체를 최후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남보다 낮아진 것을 최후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낮아지는 것이 최후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낮아지는 것이 최후가 아니라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최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그토록 부인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최후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물질 드리기를 왜 꺼려할까요?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최후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 38a)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진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야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그것이 최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천배, 만배로 보상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들에게

스톡브리지, 1755년 5월 27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온통 너에 대한 생각 뿐이어서 자주 너를 생각하고, 자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너가 비록 우리와 또 친척들로부터 멀리 있어도, 너가 비록 내 시야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 오노호콰하에 계시고,
너도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단다.



우리는 그분에게 너를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구할 수 있단다.
그분을 잊지 않고, 또 그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항상 너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거라.
매일 모든 열심으로 그분을 구하거라.
그분만이 너를 행복하게도 하시며, 그분이 원하신다면 너를 우울하게도 하실 수 있단다.
또한 너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너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장차 다가 올 너의 삶의 모든 것도 그분의 뜻과 허락하심에 달려있단다.

지난 마지막 주 화요일에 태양이 생을 마쳤단다.
너도 알고 있겠지. 너와 함께 뛰놀기도 했고, 우리집에서 묵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의 영혼은 영원한 세상으로 갔단다.
그가 죽음을 준비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차서 죽을 수도 있단다.
태양은 너보다 나이가 어렸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라.
너는 거듭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말씀.
너가 참으로 회심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한 증거를 갖기까지 절대로 평안해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셔서 다시 안전하게
스톡브리지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하거라. 인생은 불확실하단다.
너가 어느 한순간 생을 마칠지는 모르는거란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단다...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원저에서 너에게 사랑을 담아 보낸다.
우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단다.

다정하고 깊은 애정으로
너의 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언 머레이(Iain H Murray), 조나단 에드워즈 : 다시 쓰는 전기(Jonathan Edwards :
New Biography), pp. 394~395 중에서



청교도 대표 영성가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400 주년 기념 추수 감사절 부흥회 각 주제별 기도제목

1. 우리가 제 2의 청교도가 되어야 합니다(말씀: 한기홍 목사님)

1. 청교도의 신앙을 보시고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한인들이 청교도의 성경 사랑,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몸부림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통하여 한국에 청교도 신앙을 전수 받게 하셨는지, 미국이 성경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 때에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4. 미국이 살 길은 청교도 신앙 회복임을 알게 하시고 미주 한인들이 제 2의 청교도가 되고 이 나라 신앙 회복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5. 모든 한인 성도들이 이번 청교도 400 주년 기념 대각성 집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소서.

2.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말씀: 허연행 목사님)

1. 집회를 통해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제 2의 청교도가 되게 하소서.
2.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3. 이 나라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소서.
4. 미국과 세계에 부정 선거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게 하소서.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하소서.
5. 이 나라와 고국에 다시 한 번 대부흥을 허락하소서.

3. 청교도의 예배회복과 주일성수 (말씀 : 이성철 목사님)

1. 청교도와 같이 우리도 예배와 말씀 실천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2.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소서.
3.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데 불을 붙여주소서.
4.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가 소홀해졌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소서.
5. 부모가 가정의 목사 역할을 하며,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6. 주일을 거룩히 보내게 하소서. 주일이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게 하소서.

4. 청교도의 자녀교육과 가정 (말씀 : 이재호 목사님)

1.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 오늘날 미국이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떠났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3. 부모들은 자녀 앞에 말씀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함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게 하소서.
4.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게 하소서.

5. 청교도의 감사 생활 (말씀 : 강민수 목사님)

1. 하박국서를 통해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2. 청교도들이 미국 도착 첫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절반이 죽은 상황에서도 감사예배를 드렸던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가지로 어려웠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4. 우리에게 귀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5. 우리에게 제 2의 청교도의 사명을 주셔서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6.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나라 (말씀 : 위성교 목사님)

1. 이 나라가 청교도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 장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 나라의 위기마다 부흥을 주셔서 나라를 재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 말씀 부흥을 통해 미국을 타락시킨 인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로부터 미국을 구해주소서.
5. 이를 위해 이 나라 교회의 강단에서 의의 말씀이 권능있게 선포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7. 청교도의 기도 생활(말씀: 호성기 목사님)

1.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2.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충만 받게 하소서.
3. 성령충만의 결과로 거룩한 삶, 능력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4. 우리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예배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5.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6.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7. 한인 성도들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계승함으로 제 2의 청교도가 되게 하소서.

8. 청교도의 거룩한 삶의 추구와 성령충만 (말씀 : 진유철 목사님)

1.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2.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충만 받게 하소서.
3. 성령충만의 결과로 거룩한 삶, 능력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4. 우리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예배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5.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6.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7. 한인 성도들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계승함으로 제 2의 청교도가 되게 하소서.

9. 청교도의 일터에서의 삶- 직업관(말씀 : 양춘길 목사님)

1. 청교도들을 통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고 사역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재물을 절약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4.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고 기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5.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6.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일터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은사

10. 청교도의 재정관리, 유산 상속 (말씀 : 이은상 목사님)

1. 청교도를 본받아 우리 경제활동의 이유가 욕구, 이윤추구, 사치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소서.
2.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아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는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알게 하소서.
3. 모든 경제적 이익이 내것이 아님을 알아 근검 절약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게 하소서.
4. 우리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5.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선교단체,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6. 우리로 제 2의 청교도가 되어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에 쓰임받게 하소서.

11. 청교도의 가정 예배 (말씀 : 권 준 목사님)

1. 가정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어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3. 말씀의 전수, 신앙의 전수는 부모의 사명임을 깨닫고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4.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5. 자녀들이 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12. 청교도의 교육과 회복 (말씀 : 김준근 장로님)

1. 가정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임을 알아 부모가 자녀 앞에 모범이 되고 가정 예배로 여호와의 경외함을 잘 가르치게 하소서.
2. 공립학교 교육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학교를 시작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3. 이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립학교가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소서.
4. 미국의 대학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무신론자들, 다문화주의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JAMA 가 세우고자하는 린데일 킹덤 대학이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5.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 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